

AUTHOR 라은성 (Eun Sung Ra)

TITLE 로마 카톨릭 칭의 비판(I)

(Against the Justification of the Roman
Catholicism (I))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71 no.1 (Spring, 2004):331-356

여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하는 도구로서 이해한다.³⁰⁾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교회 교육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형상 회복) 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니라” (엡 4:11-15).

그러므로 이제 교회 교육은 더 이상 학습자를 종교인으로 길들이는 구태의연한 교육의 방향성을 지양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존하는 가운데 학습자(아동)가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들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성화 중심의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다음호에 계속)

30) 김광열 교수는 교육을 통한 성화에 관하여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살펴보면서 교육은 인간의 책임과 관련하여 점진적 성화안에서 이해를 피하고 있다. 김광열, “교육을 통한 성화-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신학과 교육』(1999, 2): 74-77. 한춘기 교수 역시 점진적 성화론이 입장에서 성화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춘기, “성화의 교육적 가능성과 수단에 관한 연구”, 『총신대논총』 제17집 (1998): 125-141.

로마 카톨릭 칭의 비판(I)

라 은 성
(역사신학)

I. 들어가는말

II. 트렌트 종교회의

1. 전 트렌트
2. 트렌트 종교회의
 - 첫 번째 주기
 - 두 번째 주기
 - 세 번째 주기

III. 로마 카톨릭 칭의에 대한 해독제

1. 법령에 대해
2. 교회법에 대해

IV. 나가는 말

부록: 6번째 회기

I. 들어가는 말

트렌트 종교회의(Council of Trent, 1545-63)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19차 범종교회의로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본질적인 교리, 즉 1차 바티칸 종교회의(Council of Vatican I, 1869-70)가 개최될 때까지의 로마 카톨릭 교리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지배하는 교리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였다.¹⁾ 이 종교회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반대하면서 자체 내에서의 교회 개혁을 위해

시작했고 또 16세기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의 새 가지 가운데 하나였다.²⁾ 트렌트의 주요 목적은³⁾ 종교개혁자들이 제기한 신학적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 로마교회 교리들을 정의하는데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카톨릭교회 내부에서 자행하고 있었던 수많은 악습들을 제거하므로 그 교회의 내적 삶을 철저하게 개혁하려는 데 있었다. 사실상 로마 카톨릭 내에서는 개혁의 목소리를⁴⁾ 내고 있었지만 간

1) William Cunningham, *Historical Theology*, vol. I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0), 483. 역사학자 라트렛 (Kenneth S. Latourette)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가리켜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들 중 하나"라고 했다. K.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3), 867.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종교개혁에 반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화해하기 보다는 정죄하는 입장에서 있었고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 바티칸 종교회의가 있기 까지 견고하게 트렌트에서 결정한 것들을 고수하고 있다. *ibid.*, 871. 실제로 기나긴 세월처럼 보이지만 4년간만 진행되었고 3주기(periods)와 25회기(sessions)로 이루어졌다.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말하는 창이론에 대해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빼놓을 수 없다. 현대 학자들 가운데 부인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도 로마 카톨릭인들은 트렌트에서 결정한 사항들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2) 다른 두 가지는 악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 1491-1556)와 그의 제수잇 그리고 종교개혁의 회복이었다. Clyde L. Manschreck, ed., *A History of Christianity: Reading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vol. 2 (Grand Rapids: Baker, 1964), 109를 보라.

3) Cunningham, vol. I, 492-3. 대체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원리들과 교리들을 정죄하고 논쟁점으로 등장한 로마 카톨릭 교리들을 정의내리는 것이었다. 황제는 이런 목적을 진심으로 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명치 않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이 공정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트렌트의 두 번째 시기였던 1551-2년 로마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두 차례나 초청하며 안전호송(self-conduct)의 서신을 발행하였으나 프로테스탄트들은 응하지 않았다. 섹스니 선거후 모리츠(Moritz)의 승리로 인해 황제 찰스 5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 자체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 1443-1513)와 레오 10세(Leo X, 1475-1521)에 의해 소집된 5차 라테란 종교회의(1521-17)에서 로마 카톨릭 개혁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너무나 미미했고 이어서 일어난 트렌트 종교회의 25회기는 전적으로 교황의 주도권 아래서 이루어졌다. 몇몇 부도덕한 제도들을 금지시켰다. 예를 들면, 면죄부 판매, 성직자들의 교육 향상, 수도사들의 도덕적 갱신, 지역구 감독제도, 그리고 치열한 경기 시험 등은 근절되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이 강조했던 성경의 권위는 격하시켰고 이신칭의는 정죄되었다. Cunningham, vol. I, 486.

헐적이었고 총체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 이러한 개혁 운동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들은 반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이라 부르고 카톨릭인들은 카톨릭 종교개혁(Catholic Reformation)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를 선호한다.⁵⁾

트렌트 종교회의는 교회 역사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었던 독일에서의 슈말칼드 전쟁(Schmalkald War, 1546-55)은 트렌트 시기 동안 일어났다. 이 전쟁으로 인해 1530년 이후 찰스 5세는 마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분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전쟁은 슈말칼드 연맹을 제지하기 위해 황제 찰스 5세와 독일 루터란 군주들 간에 간헐적으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마침내 이 전쟁에 승리한 루터란 프로테스탄트들은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Peace of Augsburg, 1555)을⁶⁾ 맺어 각 군주들이 종교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4) 종교개혁이 있기 전, 중세 말기에 이르러 나름대로 로마 카톨릭은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다. 그 대표적인 적이 "종교회의" (conciliar)운동과 수도원 운동을 들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티어틴(Theatine)수도회를 들 수 있다. Williston Walker et al.,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th ed.,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1985), 502.

5)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반응이라는 의미이며 그것을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빼앗긴 영역을 되찾기 원했다. K.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1953), 840. 이러한 용어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면 Walker의 책 502-14를 참고하기 바란다. 로마 카톨릭 역사신학자 제딘(Hubert Jedin)은 두 용어 사용의 시차를 주장하면서 "카톨릭 종교개혁은 교회의 내적 삶을 재건하고 갱생하려는 교회 자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반종교개혁은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투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자아 확신이다." Bauman and Klauber, 586.

6) 독일 지역에 루터란주의와 로마 카톨릭주의가 법적으로 함께 거할 수 있게 했던 신성로마 제국 의회였다. 작센의 모리츠(1521-53)과 그의 연맹의 역할로 1548년 아우그스부르크 잠정협정(Interim)이 결정되었다. 의회가 모일 때까지 평화를 찰스 5세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리하여 당시 황제 찰스 5세는 1555년 아우그스부르크로 자신이 가지 않고 동생 페르디난드 1세(1503-64)를 보냈다. 결정은 로마제국 영역에서 군주가 인정하는 한 교파만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환기 속에서 로마 카톨릭은 다른 쪽에서 종교개혁에 재 반응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교황을 위시한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던 것, 즉 프로테스탄트와 자신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교리화 하는 작업이었다. 한 편, 황제는 종교적 안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황은 우월권을 다시금 주장하려는 저의들이 깔려져 있었던 종교회의였다.

트렌트인들이 다루었던 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칭의론이었다.⁷⁾ 그래서 그들은 칭의를 다루는 1546년 6월 21일에 이렇게 썼다: “이 종교회의의 신학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칭의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주요한 이슈를 종교회의가 다루는 것이었다.”⁸⁾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만으로’ (*sola fide*)를 슬로건으로 삼

7) “칭의의 주제는 서부 신학자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Hubert Jedin, *A 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 vol. II trans. F. C. Eckhoff (St. Louis: B. Herder Book, Co., 1957), 166. 로마 카톨릭 교회 역사가인 허벌트 제딘(Hubert Jedin, 1900-1980)은 트렌트 종교회의의 사가로서 가장 유명한 자이다. 특히 카톨릭 종교개혁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권은 1545년에 시작된 트렌트 종교회의부터 1547년 볼로냐로 옮기게 되는 시점 전까지 다룬다. 2권은 볼로냐부터 시작된 종교회의의 역사를 다룬다. 그에 대한 자세한 생애, 작품, 영향, 평가, 그리고 역사관을 알려면 Michael Bauman and Martin I. Klauber, ed. 『기독교 역사가들』 라온성역 (서울: 이레, 2002)의 23장을 참고하라. 트렌트 종교회의에 나타난 칭의론에 관해 7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제딘은 제안한다: 1) 칭의에 관해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적 은혜의 최초의 도우심을 협력하므로 죄인이 구원에 이르거나 칭의를 받을 수 있는지? 2) 칭의가 본질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죄의 사함을 구성하든지 빼놓아진 은혜로 인해 본질적 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 3) 오직 믿음만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행이 요구되는지? 4) 인간의 의지가 칭의 과정에서 수동적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은혜로 더불어 능동적으로 협력하는지? 5)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선행을 ‘공로’로 여겨야하는지 그래서 공로가 사람의 협력을 전제하는지? 6) 칭의 그리고 세례의 성례와 참회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7) 칭의는 어떻게 출발하며 진행되는지? 라는 질문들을 고려할 때 트렌트 종교회의의 칭의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bid.*, 170-1.

8) *Ibid.*, 171.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요구했을 때 교황은 4주 후에 추기경 Santa Fiora를 급파하면서 5개의 기록물을 보냈다고 한다. 이 기록물은 안타깝게도 현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⁹⁾ 이 문제에 대해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다루었고 길고 긴 논쟁을 벌였다. 1546년 7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1월에 마친 6번째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 이후 그들은 트렌트 칭의관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루터란들과 로마 카톨릭인들이 함께 모여 『연합 범위원회』 (Joint Ecumenical Commission)를 창설하였다. 이 위원회는 둘 사이에 가장 걸림들이었던 칭의에 관하여 논의하여 교회 간에 지속적인 상이점들은 해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연합하자는데 뜻을 모았다.¹⁰⁾ 하지만 그들의 커다란 실수는 “*sola*”라는 말을 빼놓은 실수를 자행했던 일이 있었다.

더욱이 『복음주의자와 카톨릭인이 함께』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The Christian Mission in the Third Millennium*, 속칭 ECT로 불리는 문서)가 1994년에 출간되었는데¹¹⁾ 이 문서 역시 “*sola*”를 생략한다. 빗발 같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¹²⁾ 이처럼 카톨릭인들과 연합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것은 칭의에 관한 것이

9)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1972), 3. “기슭 깊은 곳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이신칭의!’ 라는 소리를 외친다.” Norman L. Geisler and Ralph MacKenzie, *Roman Catholics and Evangelicals*,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온성역 (서울: 그리스, 2003), 347. 특별히 이 책의 12장은 칭의에 관해 잘 정리한 책이며 또 부록 F는 현대 카톨릭주의의 칭의관 입장을 잘 요약설명하고 있다.

10) 예를 들어, Reinhard Frieling, “Ökumenischer Grundkonsens in der Rechtfertigungslehre,” *Materialdienst des Konfessionskindlichen Instituts Bebsheim* 48 (February 1997): 28-32를 보라.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교회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루터란 계열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Gerhard O. Ford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The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or Falls?” *Dialog* 27 (August 1988): 260-67. 1983년 9월에 미국 루터란-로마 카톨릭 대회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제목으로 24,000자로 된 문서가 출판되었다. 이 문서는 5년간의 결실이었다. 그 때부터 칭의의 이슈는 초교파적 연합을 목표로 하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들 간에 있는 모든 신학적 논의에 “결정적인 원리”로 불려졌다. Robert K. Welsh, “Justification by Faith: The Critical ‘Principle’ for an Ecumenical Theology,”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3 (Summer 1986): 505.

다. 이에 대하여 개혁파 입장은 어떠한가? 이 답변을 위해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은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카톨릭의 반응으로 개최된 트레نت 종교회의의 그 자체와 그 안에서 제정된 그들의 칭의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어진다. 그리고 트레نت의 시작, 과정, 그리고 끝난 직후까지 지켜보았던 존 칼빈(1509-64)이 1547년에 당시의 그들의 결정인 칭의에 관해 쓴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with the Antidote*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는 트레نت의 시작을 알고 있었기에 그 근본 의도를 완전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진행과정에서 그들의 의도와 왜곡된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지켜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악의가 어떻게 결론 내려졌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트레نت에 대한 칼빈의 분석과 비판은 누구의 것보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의미 있음을 믿는다. 이에 따라 이 소논문의 주요한 질

11) 이 문서 작성에 주된 인물들은 리처드 존 뉴하우스(Richard John Neuhaus), 찰스 콜슨(Charles Colson), 조지 웨이겔(George Weigel), 그리고 켄트 힐(Kent Hill)과 같은 인물들이다. 이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은 복음주의적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들, 즉 엘리자베스 아치트마이어(Elizabeth Achtemeier), 빌 브라이트(Bill Bright), 오스 기니스(Os Guinness), 토머스 오덴(Thomas Oden), 제임스 팩커(J. I. Packer), 그리고 패트 로버트슨(Pat Robertson) 등이다. 로마 카톨릭 가운데 서명한 사람들은 윌리엄 벤틀리 보울(William Bentley Ball), 제임스 히치콕(James Hitchcock), 피터 크리프트(Peter Kreeft), 랠프 마틴(Ralph Martin), 그리고 추기경 존 오코놀(John Cardinal O'connor) 등이다. 그런데 『복음주의자와 카톨릭인이 함께』(ECT)에 나타난 각 확인은 검토되었을 때 많은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1항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함께 확인 한다"는 것은 개혁파 수식어 *sola* ("오직" 또는 "만")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12) 1994년 3월에 작성된 ECT에 대한 복음주의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매우 보수적인 학자 Dave Hunt이다. 온건한 학자들 가운데서 비판적 간행물 *Modern Reformation*을 통해 Christians United for Reformation(속칭 CURE)에서도 "sola fide"의 생략을 집중 비판한다. 몇 개월 후, CURE의 국장인 Michael Horton과 앵글리칸 신학자 J. I. Packer는 Horton-Packer Revision을 내었다. 또 같은 해 6월에 Christian Research Institute의 소장인 Hank Hanegraaff는 ECT의 그 이후의 반응들을 소상히 살피고 글을 실었다. Memorandum from Elliot Miller to Hank Hanegraaff, "Evangelical and Catholics Together," June 16 1994.

문을 만들어 본다면, 트레نت 종교회의, 즉 로마 카톨릭 칭의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져본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부가적이고 보충적 질문, 즉 '전 트레نت'라는 제목 아래 트레نت 종교회의의 역사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대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두 번째 부가적 질문으로서 로마 카톨릭 칭의관이란 질문을 가져본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트레نت 종교회의'라는 부제 아래 로마 카톨릭 칭의관, 즉 트레نت의 칭의관을 분석, 비판, 그리고 평가하면서 칼빈은 어떻게 그들의 칭의관을 응변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 주제와 연관되어 주요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쉬로더(Henry J. Schroeder, 1875-1942)가 쓴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와 워터워스(James Waterworth)의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Sacred and Ecumenical Council of Trent*은 원문을 싣고 있지는 않지만 라틴어로 된 트레نت 결과들을 영역한 책이다. 이 책을 중심으로 트레نت에서 결정된 법령들과 교회법들을 하나씩 살펴 볼 것이다. 또 로마 카톨릭교회 역사가인 허벌트 제딘(Hubert Jedin, 1900-80)은 카톨릭 종교개혁만 아니라 트레نت 종교회의에 관한 대표적인 역사가가 쓴 *A 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을 참고할 것이다. 개혁파 입장에서 쓰인 커닝햄(William Cunningham, 1805-61)의 *Historical Theology*라는 책도 빼놓을 수 없다.¹³⁾ 최근에 나온 책으로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 1953-)가 쓴 『하나님의 칭의』(*Iustitia Dei*)는 칭의론 연구에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13) 윌리엄 커닝햄에 관한 생애, 저술, 사상, 영향, 평가, 그리고 비판을 보려면, Baumann and Klauber, 10장을 참고하라.

II. 트렌트 종교회의

1. 전 트렌트

1517년 10월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1483-1546)가 1546년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상황들도 변했다. 첫째,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 루터가 활동했을 때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다스렸던 합스부르크(Habsburg) 가문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저국가들에 있었던 카톨릭 권력들 간의 투쟁이 있었다. 이러한 투쟁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출신이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찰스 5세(Charles V, 1500-58)는 유럽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 없었다.

당시 독일이 신성로마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루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 지역, 특히 북부 독일의 많은 후원을 황제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1546년 루터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카톨릭 권력 간에 어느 정도의 평화가 조성되었다. 더욱이 터키인들(Turks)이 동쪽으로부터 제국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골칫덩이였던 터키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황제는 독일군주들의 도움이 요청되었다. 이제 찰스는 제국 내에 있는 종교적 문제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1546-48년에 있었던 슈말칼드 전쟁(Schmalkald War)이었다.¹⁴⁾

두 번째는 종교적 상황의 변화이다. 슈말칼드 전쟁이 일어나는 전후로 하여 로마 카톨릭 내에서는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그것

14) 1544년 프랑스와 평화를 맺은 찰스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헤세의 필립(Philip of Hesse)과 작센의 존 프레데릭 1세(John Frederick I of Saxony)가 1531년에 만든 슈말칼드 연맹(League)을 1547년 4월 24일 뮐베르그(Mühlberg) 전투에서 대패시키고 지도자들을 검거했다. 이 때에 그는 루터의 무덤 앞에 서서 그의 뼈를 파내라는 강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연합이 만들어져서 1555년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이 만들어졌다.

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들이 부르는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이 있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들은 거의 25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에 관해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던 말인가? 우리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외침이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 일기 시작했다.¹⁵⁾ 교황, 대부분의 국가들의 카톨릭 교권들, 황제 찰스 5세, 그리고 군사적,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신학적 수단들을 목적을 위해서 닦치는 대로 사용했던 세속 군주들은 이 운동을 지지했다.¹⁶⁾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들¹⁷⁾ 가운데 하나는 트렌트 종교회의(Council of Trent, 1545-63)였다. 여러 가지 교회 악습들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로마의 초기 교리적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트렌트인들은 종교회의의 법령들(decrees)을 통해 복음주의적 가르침을 정죄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루터의 복음의 재발견을 단언적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종교회의의를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카톨릭 내에서의 교회개혁에 관한 부르짖음은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기 전에 있었던 5차 라테란 종교회의의(1512-17)¹⁸⁾에서도 종교회의의 소집에 관한 언급했지만 유명무실해졌다가 1520년 교황 레오 10세(Leo X, 1475-1521)의 교서 『주여 일어나소서!』(Exsurge Domine)를 불태웠던 루터는 교회개혁을 위한 범종교회

15) Hubert Jedin, *Crisis and Closure of the Council of Trent: A Retrospective View from the Second Vatican Council*, trans. N. D. Smith (London: Sheed and Ward, 1967), 5.

16) 그러는 가운데 1548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루어진 잠정협정(Interim)을 통해 루터란들은 제한적이지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17)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시기에 루터란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다른 적대자들인 예수회(Jesuits)은 교황에게 맹세하면서 종교개혁으로 상실된 모든 것을 되찾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의를 이미 1518년 11월 28일에 청원한 적이 있었다.¹⁹⁾ 또 종교인들과 황제, 군주들까지 종교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제 찰스 5세는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논쟁과 교회를 재 연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교회의를 후원했다.²⁰⁾ 하지만 교황 아드리안 6세(Adrian VI, 1522-23)²¹⁾

18) 15명의 추기경, 알렉산더와 안디옥의 대주교, 10명의 대감독, 56감독들, 몇 명의 대수도원장과 수도원장, 그리고 페르디난드의 대사들, 베니체와 플로렌스의 대사들 등이 참석했다.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레오10세까지 이어졌다. 47가지 법령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전당포를 교회의 감독아래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교회적 자유와 감독적 고결성을 관계 지었다는 것 세 번째 출교 하에서는 교구의 명령 없이 어떤 책이라도 출판할 수 없다는 것 네 번째 기본이 되는 조칙(Pragmatic Sanction)에 관해 프랑스인들에 반대하여 단독적 처리를 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터키인들에 반대하고 3년 동안 기독교계의 모든 성지룩의 십일조를 거둔다고 했다. Cf. Jedin, 117-38.

19) 로마교회가 루터의 이단교리로 인해 정죄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루터는 범종교회의를 요청했던 것이다. 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소서. 맺되지 한 마리가 당신의 포도원에 침입했습니다. 오 베드로여, 모든 교회의 모체인 거룩한 로마교회를 생각하소서. 오 바울이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가르침과 죽으심으로 교회를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성자들이여, 성령의 해석에 공격을 받는 모든 보편교회여, 일어나소서. 독일에서 다시 일어난 고대 이단들에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하나이다. 이단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울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목회적 직분상 다음의 41개항의 모순의 사악함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나이다. ... 우리는 주님의 들람에 기어들어오는 뱀으로 더 이상 고통 받을 수 없나이다. 이런 모순들을 담고 있는 마틴 루터의 저서들은 검토되어 불태워질 것이다. ... 이제 마틴에게 자신의 교구에 이 교서가 붙여진 후 굴복할 수 있는 기회를 60일을 줄 것이다. 우리의 출교와 파문을 범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520년 6월 15일.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 (Grand Rapids: Eerdmans, reprint of 1910 edition), 235-247.

교황 레오 10세는 추기경 재롬 알렉산더를 시켜 보냈지만 10월 10일에 되어야 이 교서는 루터에게 도착했다. 교서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교교수들과 학생들은 모여 횃불을 피워놓고 루터는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너의 악마적 참람함과 철면피적인 부경건성을 포기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네가 꺾박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너의 적그리스도의 자리를 훔칠 것이다. 교황 아니 불경건의 대명사 존 엑크에 의해서 쓰인 이 교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 네가 나의 책을 불태운 것처럼 너의 것을 불태운다. ..." Roland H. Baintain,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Mentor Books: 1955), 128. 전체를 보려면 112-129를 보라.

와 클리멘트 7세(Clement VII, 1523-34)²²⁾ 교황보다도 종교회의가 교회의 권위를 차지하는 것이 두려워하여 회의의 소집하기를 주저했다.²³⁾ 1523년 뉘른베르크(Nuremberg)에서 개최된 의회는 독일 지역에서 자유로운 기독교 종교회의를 원했다.

다음 해, 1524년 같은 도시에서 열린 의회는 정기적인 독일 국가의 회를 열어 이슈가 되는 것들을 논의하고 로마를 고발할 수 있는 범종교회의의 필요성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독일 지역의 도전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황은 독일 국가의회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황제 찰스 5세 역시 국가의회를 반대했지만 교황 클리멘트 7세에게 대사들을 보내어 범종교회의를 트레نت에서 소집할 것을 고려토록 했다. 하지만 황제가 주재하는 종교회의는 프랑스와 영국에 반감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교황청의 권한에도 위협하다는 판단에 교황의 제안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지 수년이 지난 후, 교황과 황제 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

1529년이 되어 황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지배 지역에 안정을 갖게 되므로 종교회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교황의 사절

20) 찰스 5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분열로 생겨난 운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종교회의를 통해 종교개혁자들과 로마교회의 화해를 도모코자 했으며 프로테스탄트 영내에 분파들이 있기를 원했다. 그 결과 평화를 찾코자 했다. Latourette, 728.

21) 그는 Zwolle와 Deventer에서 공동체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에서 연구했던 자였다. Louvain에서 철학, 신학과 교회법을 배우고 1491년에 신학박사를 받고 그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었다. 황제 찰스 5세가 7세 때에 개인교수였고 스페인으로 보내져 Aragon의 종교재판장이 되었다.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St. Ioannus et Pauli의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22) 그는 메디치 가문의 한 사람으로 사촌 교황 10세와 함께 지냈다. 플로렌스 출신이었다. 교황권을 정치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었지만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였다. 영국 왕 헨리 8세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이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황직에 있었다.

23) 교황 피우스 2세(Pius II, 1405-58)의 회칙 『혐오 받는 것』(Execrabilis)과 쾰른 대학교의 응답에 따라 콘스탄스(Constance)종교회의에서 확립된 범종교회의의 우월성 이론이 밀려나고 종교회의와 자유토론을 피하려는 것이 교황들의 정책이 되었다.

인 피코 델라 미란돌라(Pico della Mirandola, 1463-94)는 2차 스파이어(Speyer) 의회²⁴⁾에서 터키인들에 대항하여 독일인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군주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고 오는 여름에 종교회의를 개최할 것을 밝혔다. 그래서 찰스와 클리멘트 7세는 다음해 1530년 볼로냐(Bologna)에서 만났고 필요하다면 종교회의를 소집할 것을 교황은 약속했다. 기독교계의 총체적인 평화를 위해 종교회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는 가운데 1530년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 의회²⁵⁾가 열렸다. 그리하여 양측은 화해하려고 노력했다. 이 곳에서 종교회의의 필요성을 위한 찰스의 제안이 독일 카톨릭 군주들의 후원을 받았지만 독일 영역에서 회의가 개최되기를 바랐다.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 후에도 서로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황제 찰스 5세는 서한을 로마에 있는 대사에게 보내 교황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의 제안에 따라 교황도 프로테스탄트들이 교회에 순종할 것이면 종교회의를 소집할 것을 약속했고 그 장소로서 이태리 지역이기를 제안했다. 하지만 황제 찰스는 클

24) 1526년에 1차 스파이어 의회가 개최되었고 두 번째 의회에서 찰스는 이단들을 처벌하고, 수많은 제세례파들을 처형했다. 이단들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는 찰스를 향해 루터란 군주들은 저항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25) 루터란들과 로마 카톨릭인들이 함께 모여 *cuius regio, eius religio*를 확인했다. 하지만 개혁파들은 무시되었다. 아우그스부르크 의회 동안 로마 카톨릭과 독일 프로테스탄트들 간의 화해에 대하여는 Herbert Immenkter, *Um die Einheit im Glauben. Die Unionsverhandlungen des Augsburger Reichstags im August und September 1530*, vol. 33, 2nd edition of *Katholisches Leben und Kirchenreform* (Münster: Aschendorff, 1974), Gerhard Müller, "Zwischen Konflikt und Verständigung. Bemerkungen zu den Sonderverhandlungen während des Augsburger Reichstages 1530," in *Die Religionsgespräche der Reformationszeit*, ed. Gerhard Müller (Schriften des Vereins für Reformationsgeschichte 191 (Gutersloh: Mohn, 1980): 21-33 and *Vermittlungsversuche auf dem Augsburger Reichstag 1530*. Melancthon-Brenz-Vehus, ed. Rolf Decort (Veröffentlichungen des Instituts für Europäische Geschichte Mainz, Abt. Religionsgeschichte 26; Stuttgart: Steiner, 1989)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리멘트의 진심을 의심했고 설상가상으로 프로테스탄트들도 자신들의 교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입장은 프랑스의 1세도 후원했다. 1532년 황제와 교황은 종교회의의 건으로 볼로냐에서 다시금 만나 모든 기독교 군주들이 동의하면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로 사절단을 보내었지만 교황의 제안에 대해 반감지 않은 대답을 했다.

교황 클리멘트 7세는 세상을 떠나고 그를 이어 폴 3세(Paul III, 1534-49)²⁶⁾가 교황이 되었다. 그는 항상 종교회의에 관해 긍정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1534년 10월 17일 범종교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을 실천해 나갔다. 장소에 대해서는 쉽지 않았지만 이태리의 도시를 고집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프랑소와 1세와 영국의 헨리 8세의 지지를 받고 있던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은 쉬말칼드에서 다음 해 12월에 모여 제안한 종교회의를 거부했다. 1536년 찰스 5세가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과 함께 종교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그래서 동년 6월 2일 폴 3세는 교서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무리에 대해』(*Ad dominici gregis curam*)²⁷⁾를 발표하여 모든 대주교들, 감독들, 수도원장들을 1537년 5월 23일에 만투아(Mantua)로 소집했다. 종교회의를 위한 사절단들을 유럽 국가들로 보냈다. 하지만 쉬말칼드에서 모인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은 종교회의에 참석할 것을 반대했다. 프랑소와 1세는 1536년에 발생한 황제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에 사절단

26) 그의 본명은 알레산드로 파르네제(Alessandro Farnese)이다. 현명한 인문주의자로서 문학과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고위 성직들을 허락하거나 국가 고위직을 빼돌렸던 편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고 있다. 영국왕 헨리 8세를 출교했고 이태리에 종교재판이 시행되도록 고무했다. 1540년 예수회(Jesuit Order)를 인정하여 이단자들의 뒤를 공격하도록 했다.

27) 소집 교서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등록되지도 않았다. 이 교서에는 겨우 6명의 추기경들의 서명만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이단들로 인해 종교회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Edward H. Landon, *A Manual of Councils of the Holy Catholic Church*, vol. II (Edinburg: John Grant, 1909), 181.

을 그를 방문하지 못했다. 헨리 8세도 역시 반대했다.²⁸⁾ 더욱이 만투아의 공작까지도 개최하는 것을 반대했다. 동의한 군주들도 로마에서 개최되는 것에는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11월로 연기되어 1538년 비첸차(Vicenza)에 모이기로 했지만 프랑스와 1세로 인해 개최되는 것은 난관에 직면했다. 실상가상으로 비첸차에 모였던 겨우 6명의 감독들도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교황은 프랑스와 1세를 니스(Nice)에서 만나 1539년까지 연기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찰스 5세와 프랑스와 1세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종교회의의 개최는 점점 희미해져가기만 했다.

1540년과 1541년에 보름스(Worms)와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에서 제국적 대화를 시도하여 화해코자 했다.²⁹⁾ 이 곳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칭의에 관한 것이었다. 양쪽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sola fide*)라는 표현이었다. 이 곳에서의 결정된 사항들이 "Regensburg Book"과 "Worms Book"이라는 것으로 나왔지만³⁰⁾ 칭의에 가르침에 관해 로마 카톨릭인들과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

28) J. Waterworth,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Sacred and œcumenical Council of Trent* (Chicago, Ill.: Christian Symbolic Publication, 1848), lxii. 공작은 교황에게 150 보병과 100명의 마병의 군인들에게 지불할 금액을 요구했다.

29) 종교적 논의에 대하여 Irene Dingel, "Religionsgespräche IV. Altgläubigprotestantisch und innerprotestantisch,"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28 (Berlin: de Gruyter, 1977): 654-81. 또 Athina Lexutt, *Rechtfertigung im Gespräch: das Rechtfertigungsverständnis in der Religionsgespräche von Hagenau, Worms und Regensburg*, vol. 64 of *Forschungen zu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을 참고하라. 제국 수상이었던 Nicolas Perrenot de Granvelle (Granvella의 개회 연설에 관해서는 C. G. Bretschneider와 H. E. Bindseil, ed., *Philippi Melantho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Halle and Braunschweig: Schowetschke, 1834-1860), 3:1163-1168.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쾰른의 추기경 Johannes Gropper, 제국 법률고문 Gerhard Veltwyk,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Martin Bucer, 그 곳의 목회자 Wolfgang Capito 등이 참석했다.

30) Cornelis Augustijn,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d. 9,1 in *Religionsgespräche (1539-1541)*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1995): 355, 12.

모두 거부당했다.³¹⁾

다시금 교황 폴 3세와 황제 찰스 5세는 1541년 9월 루카(Lucca)에 모여 앞으로 비첸차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이태리 지역에서 종교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폴에 반해 찰스 5세는 루터란들이 결코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장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 후, 1542년

31) 칭의 외에도 교회론, 성례론, 교회 관습, 그리고 교회 규율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Gropper의 작품을 보려면 그의 보름스 책을 기초하여 쓰여진 *Enchiridion*, 또 Robert Stupperich, "Der Ursprung des 'Regensburger Buches' von 1541 und seine Rechtfertigungslehre," *Archiv fr Reformationsgeschichte* 36 (1939): 88-116, 또 Joachim Mehlhausen, "Die Abendmahlsformel des Regensburger Buches," *Studien zur Geschichte und Theologie der Reformation. Festschrift für Ernst Bizer*, ed. Luise Abramowski and J. F. Gerhard Goeter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9), 189-211. 이러한 견해와는 다르지만 Cornelis Augustijn의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d. 9, 1 in *Religionsgespräche (1539-154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5): 330를 보라. Bucer와 Gropper의 관계를 보다 알기 원하면 Georg Kuhaup, *Verfentlichte Kirchenpolitik. Kirche im publizistischen Streit zur Zeit der Religionsgespräche (1538-1541)* vol. 69 of *Forschungen zu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를 참고하라. 여기에서는 이중적 칭의(*duplex iustitia*)를 말했다. 루터의 경우에도 처음에는(1518년) 이와 흡사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1530년대와 1540년대에 사용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루터에 의하면 인간의 '능동적 의'는 일시적인 것으로 시민적인 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 의' (*iustitia passiva*)로서 믿음의 의가 있다고 한다. 수동적 의에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나온다고 했다. "Worms Book"에서 "칭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 받게 된다. 이런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의 영광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고 한다. 계속해서 의롭게하는 믿음(*fides iustificans*)과 사랑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믿음(*fides efficax*)은 나란히 서있다고 한다. Cornelis Augustijn, 9, 1: 354, 11-15. "Regensburg Book"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한다. 이런 면이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신의 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언급한다. "Worms Book"에서는 또 다시 성령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making righteous*)을 말한다. Cornelis Augustijn,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388, 6-7. 몇 줄을 더 나아가서 선행은 우리의 구원을 향상시키고 완성시킨다는 로마 카톨릭 입장을 그대로 말한다. *Ibid.*, 392, 14-5

5월 22일 폴 3세는 동년 11월 1일에 트렌트에서 개최할 것을 발표했다.³²⁾ 이러한 발표에 대해 프로테스탄트들은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프랑소와 1세 역시 반대했다. 더욱이 찰스 역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교황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면서 반발했다. 단지 독일 카톨릭 군주들과 폴란드 왕 지기스문드(Sigismund, 1467-1548)만 동의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이태리와 독일 감독들만 트렌트로 모였다. 하는 수 없이 폴 3세는 1543년 3월 볼로냐에 방문한 후, 6월 찰스 5세를 만나 러 부세토(Busseto)로 갔다. 하지만 문제는 진전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교황과 황제간의 갈등과³³⁾ 찰스 5세와 프랑소와 1세간의 전쟁으로 인해 종교회의는 또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1544년 9월 17일 크레스피(Crespy)협정으로³⁴⁾ 인해 교황과 황제 간에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황 폴 3세는 교황 교서 『기뻐하라 예루살렘』(*Laetare Hierusalem*)을³⁵⁾ 발표했다. 그리하여 1545년 3월

15일에 트렌트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³⁶⁾ 하지만 몇 명 안되는 감독들만 트렌트에 모였다. 황제 찰스 5세의 개회 연설의 청원에 힘을 입어 12월 13일에 첫 번째 회기가 비톤토(Bitonto)의 감독 코르넬리오 무소(Fra Cornelio Musso)의 라틴어로 전파된 설교와 추기경 델 몽트(del Monte)의 성 미사의 집례로 시작되었고,³⁷⁾ 이어서 다음 해 1546년 1월 7일에 두 번째 회기를 개최할 것을 공고했다.³⁸⁾

2. 트렌트 종교회의의³⁹⁾

첫 번째 주장은 모임의 순서들을 정하는데 주로 보냈다. 열띤 논쟁 끝에 추기경 사절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 즉 교리적 질문들과 교회적 질문들이었다. 모든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들을 다루기로 하

32) 여기에서 내린 교서 『매우 중요한 종교회의』(*Superni dispositione consilii*)의 목적은 감독들이 담당교구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권하는 것이었다. Jedin, vol. I, 443-45.

33) Cf. Jedin, *Crisis*, 8. 본래 황제 찰스 5세의 계획은 독일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연맹인 슈말칼트를 군사적 힘으로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 종교회의를 마련하여 여세를 몰아가서 제국의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교황은 종교회의를 서둘러서 자신의 우월성을 가지려고 이태리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음흉한 음모들이 갈등을 빚고 있었다.

34) Treaty of Crespy는 1544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찰스 1세와 프랑소와 1세와 크레스피(전에는 Crespy로 불려짐)에서 황제는 Burgundy를 자신의 영지로, 프랑소와는 Naples, Flanders, 그리고 Artois를 자신의 권한하에 둔다고 비밀협정을 맺었다. 또 프랑소와는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을 억압하는 것을 돕기로 했고 제네바를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시킬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영국왕 헨리 8세와 반대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35) Jedin, vol. I, 504-5. 이 말씀은 이사야 66:10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평화를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축하는 글이 담겨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무리에 대해』(1536)와 『매우 중요한 종교회의』(1542)의 교서처럼 서둘러서 만들어졌지만 역사적으로 성공한 교서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36) 종교회의에서 사회할 교황 사절단들은 추기경 Giovanni del Monte, Reginald Pole, Marcello Cervini, 그리고 Reginald Pole 등으로 임명되었다. 폴 3세는 로마에 머물러 있었다.

37) 델 몽트는 미사를 거행한 후 종교회의의 두 가지 목적-이단 척결과 교회 개혁-을 천명했다. 그래서 모든 감독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고백토록 했다. 합창단에서는 "Veni Creator" (오소서 창조주야!)과 "Te Deum" (하나님께!)이라는 찬송이 흘러나온 후, 회의는 시작되었다. James Anthony Froude, *Lectures on the Council of Trent* (London: Longmans, 1896), 174.

38) 3명의 교황 사절단들 외에 참석한 사람들은 트렌트의 감독, 추기경 Madruzza, 4명의 대감독들, 21명의 감독들, 5명의 수도회장들 등이었고, 독일왕 페르디난드의 공식사절단과 42명의 신학자들, 8명의 교회법 학자들이 참석했다. Waterworth, lxxiv.

39) 파올로 사르핀(Paolo Sarpin)은 베네치아의 교회 법학자이면서 궁정 신학자로서 트렌트 종교회의는 교황의 절대적 영향력 속에서 진행되었던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1619년 『트렌트 종교회의의 역사』(*Istoria del Concilio Tridentino*)를 쓰기에 이른다. 첫 페이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이 염원하고 또 힘없이 허물어지는 교회의 단일성을 재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해 놓은 종교회의가 어떻게 균열을 빚게 되었고 격분시켰던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나? 그 회의를 이용하여 성직자를 개혁시키려 했던 제왕들이 어떻게 좌절될 수 있었고 감독들이 교황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잔폭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노력해 온 성으로 임할 수 있었을까? 끝으로, 최고 지상권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고 로마 교황청의 위함과 공갈을 받은 종교회의가 그 최고 지상권-적어도 교회가 신실하게 고수하고 있었던 것-을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이전 보다 훨씬 깊은 근원을 발굴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Jedin, vol. II, 7.

고 12월 18일에 사절단들이 범종교회의 앞에 17개의 항목을 제시했다. 주요한 내용이 교의적 질문으로 논의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회적 삶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루자는 지배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교회의 교의들을 먼저 다루고난 후 이어서 교회 개혁과 규율을 위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⁴⁰⁾ 또 수도원장들에 관한 투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기나 긴 논의를 했을 때 각 수도회는 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결정했다.⁴¹⁾ 두 번째 회기에 선 종교회의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했다.

그 주요 요지는 “트렌트의 거룩한 회의”(Sacrosancta tridentina synodus)라는 명칭에 “우주적 교회를 대표하는”(universalem ecclesiam reppresentans) 어구를 첨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다수가 콘스탄스(Constance, 1414-18)와 바젤 종교회의(Basel, 1431-49)와 같이 지역의 이름을 붙이자고 결의했다. 세 번째 논의는 결석하는 자들의 위임권에 관한 것이었다. 본래는 위임을 받은 대리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폴 3세는 독일 감독들에게만큼은 예외로 했다. 그러다가 1562년에 교황 피우스 4세는 이러한 혜택을 철회했다. 진행방법은 6그룹으로 나누어진 신학자들이 각 그룹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작성하였다.⁴²⁾

첫 번째 주기(1545-47 : 1-8회기)

트렌트 종교회의의 교리적 결정들은 두 가지, 법령(*decreta*)과 교회법(*canones*)으로 나뉜다. 전자는 로마가 주장하는 교의들의 성명서이

40) 교황과 이태리인들은 교의를 먼저 개혁하기 원했지만 찰스는 교회개혁을 먼저 다루기를 원했다. Del Monte가 주창하여 교의부터 다루기로 했다. Waterworth, lxxix-lxxx.

41) 투표는 콘스탄스와 바젤처럼 사제들, 군주들, 그리고 지정된 평신도 만 아니라 고위 성직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데 추기경, 감독, 그리고 수도원장들이 갖는데 모두 개인별로 하였다. Jedin, vol. II, 19-21; Waterworth, lxxv. 또 본래 수도원장들은 초청받지 않았다. Jedin, *Crisis*, 18.

42) Jedin, vol. II, 23-4.

고, 후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anathema sit)로 결론짓는 분파적 프로테스탄트들의 견해를 정죄하는 것이다.⁴³⁾ 그 중에서 칭의에 대한 법령은 신학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졌다.⁴⁴⁾ 또 프로테스탄트 교리들은 아주 과장되게 묘사되었고 이단설로 취급하였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 모였던 트렌트 종교회의는 1545년 12월 13일의 공식적 회기를 시작한 이래 1546년 1월 7일에 시작된 2번째 회기를 가졌는데 이 두 회기에서는 단지 회의 절차에 관한 것만 다루었다. 그래서 종합된 질문들이 종교회의에 상정되고 그것을 신학자들과 교회법학자들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검토된 사항들을 전체 종교회의에 내어놓게 되고 심의하고 결정하여 회기에서 공식 발표한다는 절차를 정했다. 이어서 2월 4일에 3번째 회기에서 믿음이나 규율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니케아-콘스탄틴노플 신조를 재 확인한 후, 성경을 신적 계시의 근원과 정경으로 인정했다.⁴⁵⁾ 1546년 4월 8일에 시작된 4번째 회기에서 법령은 외경(Apocrypha)을 다른 정경과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믿음의 규율인 성경과 교회 전통은 공조한다고 발표했다. 또 불가타역을 설교와 논쟁을 위한 권위 있는 본문으로 확인했다. 성경은 교부들의 만장일치의 증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미신적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다는 것과 관련지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

43) Cunningham, vol. I, 494.

44) Waterworth, ci.

45)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정이었다. “1. 신 구약으로 구성된 모든 책들이 거룩하고 정경적인가?; 2.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함 없이 인정 되는가?; 3. 거룩한 문서들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가?: 하나는 잠언과 지혜서로서 교화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리와 도덕을 위한 책들이다.” Waterworth, lxxiii-v. 보다 자세한 논의를 보려면, Ibid., lxxxix-xc; Jedin, vol. II, 52-98.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관한 자료를 보려면, Geisler and McKenzie, *Roman Catholics and Evangelicals*,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온성역(서울:그리심, 2003)의 10장 ‘성경’(252-86)을 보라.

은 성경과 교회법령 외에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⁴⁶⁾

1546년 6월 17일 5번째 회기가 시작되어 드디어 원죄에 관련되어 5개의 교회법을 만들었다.⁴⁷⁾ 개혁에 관련된 법령, 즉 주로 설교자들과 성경사용에 관한 법령들이 공포되었다. 7월 29일 6번째 회기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가장 극적인 상이점을 나타내는 '오직 믿음만으로' (*sola fide*)라는 교리를 다루었다. 길고 긴 열띤 논쟁을⁴⁸⁾ 마무리하고 마침내 1547년 1월 13일 칭의에 관한 법령을 발표 했다. 프로테스탄트를 정죄하는 36개의 교회법에다가 서문과 16개의 법령을 첨가하였다. 칭의에 관한 것은 트렌트 종교회의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트렌트는 프로테스탄트의 칭의론을 반대하고 믿음과 선행 위에 칭의가 기초한다고 발표하고 믿음을 점진적 행위(*progressive work*)로 취급했다.⁴⁹⁾

다음 회기에서는 성례와 감독임명과 활동 영역에 관련되어 논의했다. 1547년 3월 3일에 시작된 7번째 회기에서는 성례전에 관해서 13개의 교회법, 세례에 관해서는 14개의 교회법, 견진성사에 관해서는 3개의 교회법, 개혁에 관한 법령은 15개의 장에서 다루었다.⁵⁰⁾ 하지만 독일 프로테스탄트들과 찰스 5세간의 일어난 쉬말칼드 전쟁이 일어났다. 설상가상으로 트렌트에서 발생한 유행병으로 인해 한 명의 감독이 죽게 되므로 볼로냐(Bologna)로 옮겨 진행하려고 했다.⁵¹⁾ 그래서 1547년

46) 불가타에 관해 '가장 정확하게 인쇄된 역본' 이라고 하면서 결정했다. Waterworth, xcix-cxii.

47) 5월 24일 원죄, 원죄의 속성, 그 결과, 그리고 세례와 연관되어 빚어지는 소멸되는 사항들을 다루었다. 동정녀의 원죄 없는 잉태설(*Immaculate Conception of the Virgin*)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모두 꺼려했다. 하지만 종교회의는 "하나님의 모친에게서 원죄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Jedin, vol. II, 156-8, 162.

48) 칭의에 관한 논쟁이 워낙 민감하기에 황제는 프로테스탄트 군주들과의 전쟁의 위협 때문에 다루지 않기를 바랐기에 교황과 황제 간 분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칭의의 논의에 대해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지배적인 분위기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49)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s. x-xi.

50) Landon, vol. II, 193-5.

3월 11일 8번째 회기에서 대부분의 트렌트 교부들은 볼로냐로 가기로 결의하였다.⁵²⁾ 이에 대해 찰스 5세는 매우 불만족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교황 폴 3세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쉬말칼드 전쟁에서 승리한 찰스는 더욱 기세가 당당했다. 1547년 4월 21일에 볼로냐에서 모였던 9번째 회기에서는 회기를 정회한다는 것만 결정했고⁵³⁾ 동년 6월 2일에 10번째 회기를 개회했으나 6명의 대감독과 36명의 감독, 한 명의 대수도원장, 그리고 2명의 수도원장 밖에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황과 황제간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이 불투명해져갔다.⁵⁴⁾ 교황은 하는 수 없이 볼로냐에 거하고 있는 4명의 감독과 트렌트에 남아있는 4명의 감독들을 불렀지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9월 17일에 종교회의를 정회하고 말았다. 더욱이 폴 3세가 1549년 세상을 떠나므로 트렌트 종교회의의 1차 주기가 끝났다.

두 번째 주기(1551-52 : 9-14회기)

폴 3세를 이어 율리우스 3세(*Julius III*, 1550-55)가⁵⁵⁾ 교황으로 선출되어 1550년 11월 14일 "함께 일어나자" (*Quum ad tollenda*)라는 교서를 발표하여 트렌트 종교회의를 지속시켰다.⁵⁶⁾ 1551년 5월 1일 11

51) Durant, 930. 이태리인들은 옮기는 것을 찬성했지만 스페인과 제국인들은 반대했다.

52) 볼로냐에 참석한 사람들은 4명의 추기경, 9명의 대감독, 41명의 감독, 두 명의 대리인들, 두 명의 수도원장, 3명의 수도회 대표, 그리고 50명의 신학자들이었다. 찰스 5세에게 속한 14명의 감독들은 트렌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회의록을 보려면, Waterworth, 67-8을 보라.

53) "... 트렌트에서 모였으니 이제 법적으로 볼로냐에서 존경받는 델 몬트의 사회로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다"로 시작하고 "오순절 8일 내에 모일 것이다. ..." Waterworth, 69.

54) Landon, vol. II, 195-6.

55) 그는 종교회의의 최고의 추기경이고 지금까지 종교회의의 사회를 맡았던 지오반니 델 몬트(*Giovanni del Monte*)였다. 교육을 많이 받은 자로서 로마에서 고위 성직자로 지냈다. 자유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56) 사회자로 Sebastian Pighinus of Siponto 대감독인 추기경 Marcellus Crescentius와 감독 Aloysius Lipomanni of Verona를 임명했다. 신학자들은 교황이 보낸 Lainez 와 Salmeron 그리고 황제가 보낸 Johannes Arza였다.

번째 회기가 속회되고 성체와 규율 법령들이 신학자들과 여러 그룹에서 논의했고 12번째 회기를 9월 1일에 모일 것을 결의했다.⁵⁷⁾ 1551년 9월 1일에 모인 12번째 회기에서 결정한 것은 독일 감독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10월 11일까지 연기한다는 것이었다.⁵⁸⁾ 또 교황과 프랑스왕 앙리 2세간의 파르마(Parma) 공작령에 관해 문제가 일어났다.⁵⁹⁾ 그래서 프랑스 대사 암요(James Amyot)는 교황에게 불평하는 서신을 전달했다.⁶⁰⁾ 13번째 회기는 성체에서⁶¹⁾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한다는 것, 즉 화체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령을 공고했다. 8장과 11장 교회법으로 구성된 이 법령은 철저히 감독과 감독 지역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종교회의에 참석코자하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안전호송을 약속했다.

11월 25일 14번째 회기는 참회에 관해 9장과 종부성사에 관해 3장을 포함하는 교의 법령을 선포했다. 참회에 관련된 장에는 다시 이단들의 가르침을 정죄하는 15개의 교회법과 종부성사에 관해서는 4개의 교회법을 첨가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⁶²⁾ 트레นต์에 참석하여 아우그스부르크의 항목과 모순 되는 법령들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고 교황이 종교회의의 권위에 굴복할 것을 주장했다. 15번째 회

57) "계속되어질 회기가 9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Waterworth, 73.

58) Landon, vol. II, 196.

59) Waterworth, cxxxi.

60) *Ibid.* 그리고 Landon, 196. 서신은 종교회의에서 읽혀졌고 다음 회기에 교황의 답변도 읽혀졌다.

61) 빵과 잔에 관한 것과 어린이들의 성체 참석에 관해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되었다. 10월 15일에 참회와 종부성사에 관해 신학자들, Gropper, Nausea, Tapper, 그리고 Hessels에 의해 논의 되었다.

62) 멜랑흐톤을 비롯한 신학자며 역사가인 스트라스부르크의 존 슬라이다누스(John Sleidanus)가 참석했다. 멜랑흐톤(Melanchthon)과 브렌츠(Johann Brenz)와 다른 독일 루터란들은 트레นต์ 종교회의를 향해 출발했다. 브렌츠는 고백서를 제출했고 멜랑흐톤은 뉘른베르크보다 멀리 가지 않고 『작센 고백서』(*Confessio Saxonica*)로 알려진 것을 평화적 성명서를 들고 갔다.

기는 1552년 1월 25일에 10명의 대감독들과 54명의 감독들로 시작되었으나 작센의 모리츠(Moritz)가 다시금 루터란 편에 서서 찰스 5세를 공격하므로 트레นต์는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감독들이 하나씩 트레นต์를 빠져 나갔고 몇 남지 않은 스페인 감독들로 종교회의를 지속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트레นต์ 종교회의는 1552년 4월 28일 향후 2년 동안 정회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동년 8월 2일 파소(Passau) 협정으로⁶³⁾ 페르디난드가 더 이상 종교회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다음 주기까지 유럽에는 많은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었다.⁶⁴⁾

세 번째 주기(1562-63 : 15-25회기)

1555년 율리우스 3세도 세상을 떠나고 그를 이어 트레นต์의 추기경 사절이었던 마르첼루스 2세(Marcellus II, 1555)가 선출되었으나 22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다시 폴 4세(Paul IV, 1555-9)가⁶⁵⁾ 교황으로 선출되어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가능하지 못했다.⁶⁶⁾ 그래서

63) 이 협정은 작센의 모리츠와 페르디난드 1세(후에 황제가 되고 찰스 5세의 동생)간의 맺어진 협정이다. 포로된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을 석방하고 1555년의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에 있게 될 종교적 평화를 위한 길을 마련했다. 이라는 사이에 1553년 영국왕 에드워드 6세(1537-1553)가 죽고 피의 메리가 여왕으로 있으면서 영국도 로마 카톨릭 국가로 되돌아왔다.

64) 독일에서는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1555)으로 어느 정도 평정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칼빈주의는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점점 자체의 모습을 다져가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앙리 2세(1519-1559)가 죽고 그의 아내가 Catherine de Medici가 섭정하고 그의 아들 프랑소와 2세(1559-60)-Mary of Scots와 결혼한 자가 자리를 이었다. Gallicanism이 일어났다. 아테리,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은 이미 카톨릭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Jedin, *Crisis, Crisis*, 13-5.

65) 그는 추기경 Pietro Caraffa는 1524년에 프로테스탄트들과 겨루고 로마 카톨릭 내부의 도덕적 갱신을 위해 세워진 티어틴즈(Theatines)의 설립자이다. 그는 금욕적 삶을 살았고, 인문주의를 반대하고 스콜라 신학자의 자세를 고수했다.

66) 황제 페르디난드는 트레นต์가 독일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종교회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프랑스왕 역시 트레นต์보다는 새로운 종교회의를 지지했다.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은 종교회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를 이은 피우스 4세(Pius IV, 1559-65)는⁶⁷⁾ 1560년 11월 29일 교황 교서 “교회적 지침을 향해”(Ad ecclesiae regimen)를 발표하여 1561년 부활절에 트레نت 종교회의를 갖기로 했다. 나움부르크에서 루터란들과도 접촉하여 참석토록 권했으나 거절당했다. 감독들의 참여도가 미진했기에 1562년 1월 18일까지 지연되어 17번째 회기가 시작되었으나⁶⁸⁾ 세속권력자들과 감독들 간의 갈등으로 공식적 아무런 발표도 못하고 다음 회기 일자만 결정하였다. 18번째 회기는 1562년 2월 25일에 모여 프로테스탄트들을 위한 안정호송을 동의했고 금지목록들을 출판할 것을 결의했다. 『금지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⁶⁹⁾ 『일과 기도서』(Breviary), 그리고 『미사전서』(Missal)를 위한 위원회가 교황의 권한 아래 만들어졌다. 휴회 되자마자 회의는 모든 법령과 교회법들을 교황청에게 비준할 권한을 드리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일은 1564년 피우스 4세가 모든 로마 카톨릭인들에게 엄격한 복종을 요구하는 교서를 내리는 글에서 교황만이 이것을 주장할 수 있고, 비권위적 해석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법령을 해석할 추기경 위원회를 임명했다.

19번째 회기는 그 해 5월 14일, 20번째 회기는 1562년 6월 4일에 모였는데 교황 사절단들과 황제 페르디난드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성찬에 대한 여러 법령들이 정해졌다. 같은 해 7월 16일에 21번째 회기가 열렸고 유아들의 성찬에 관해 4장과 4개의 교회법을 선포했다.⁷⁰⁾ 또

67) 그는 추기경 Giovanni Angelo de' Medici이며 은화한 성품을 지닌 자였다. 모든 회생을 치루더라도 종교회의를 마무리하는데 전념했다. 황제 페르디난드 1세와 스페인왕 필립 2세와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68) 4명의 추기경 사절단, 한 명의 추기경, 3명의 대주교, 11명의 대감독, 40명의 감독, 4명의 수도원장, 그리고 4명의 수도원장들과 34명의 신학자들이 참석했다.

69) 『금지목록』은 1564년에 발표되었고 또 트레نت 신앙 고백서와 트레نت 교리문답(1564), 『일과 기도서』(1568), 『미사전서』(1570), 그리고 불가타(1590과 1592) 등이 출판허가를 받게 되었다.

70) 미사의 희생제사는 9장과 9개의 교회법, 성직자들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11장이 있었다.

성직 임직과 교회재정, 새 교구에 관한 지침들도 정해졌다. 끝으로 미사에 관한 논의가 거론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논의하여 교의로 정하게 되었다. 22번째 회기는 1562년 9월 17일에 모여 4개의 법령이 선포되었다. 하나는 미사의 희생제사, 둘째는 희생제사, 셋째는 성직자들의 도덕성 회복, 마지막으로 성찬의 잔을 평신도들에게 주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다루었다. 특별히 성직자 임명에 관한 논의는 84명의 신학자들이⁷¹⁾ 논의했다.

1563년 7월 15일 23번째 회기가 모여서 교회적 교권제도와 성직수입 성례와 개혁에 관해 법령을⁷²⁾ 발표했다. 특별히 교회에 7단계의 직분을 밝혔다. 사제직(de sacerdotibus)과 집사직(de diaconis)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다. 감독직은 사도들을 계승한 것이기에 사제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사람들이나 세속 권력에 의해 사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오직 로마 교황청의 권위로 임명된 감독들만이 참된 감독들이다.⁷³⁾ 젊은 성직자들의 교육에 관한 지침들도 논의되었다.

1563년 11월 11일 24번째 회기에서 혼인성사를 성례의 법령으로 결혼에 관해 12개의 교회법과 개혁 법령이 10장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정했다. 독신적 상태를 재 확인했고, 축첩제도를 정죄했고, 결혼의 정당성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거행될 때에만 인정된다고 했다. 간음으로 이혼한 경우 범한 상대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재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5-26번째 회기는 1563년 12월 3-4일에 25-26번째 회기가 모여서 연옥설, 성자승배와 성상에 관련된 법령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에 관한 법령도 만들었다. 12월 4일 면죄부 판매, 금식과 축제일, 교리문

71) 그들 가운데 주요한 Salmeron, Soto, 그리고 Lainez 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72) 성직 수입에 관해 5장과 8개의 교회법, 그리고 교회 개혁에 관해서는 18장을 세분하여 설명했다.

73) Heinrich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11d (Friburgi Brisgoviae, Germany, West: Herder & Co., 1947), nos. 958-69.

답, 금지목록 등에 관한 최종적 법령들이 준비되었다. 폴 3세와 올리우스 3세가 있을 동안 선포된 법령들이 재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법령과 교회법들을 재 확인했다. 215명의 회원들이⁷⁴⁾ 참석하였던 트레트 종교회의는 1564년 1월 26일 피우스 4세의 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Benedictus Deus)이 내려졌고 카톨릭 교회에 수용되었다.

트레트 종교회의의 법령들은 이태리, 포르투갈, 폴란드 등지에서 인준되었고, 독일의 로마 카톨릭 군주들은 1566년 의회에서 인준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시실리 등지에는 황제 필립 2세에 의해 인준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왕에 의해 인준되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인준하지 않았으며 교황 피우스 4세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에게 1564년 6월 13일에 서한을 보내어 인준할 것을 청했으나 메리는 존 닉스의 종교개혁이 시행되는 가운데서 감히 시행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회의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해결했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내적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호에 계속)

74) 4명의 추기경 사절단, 두 명의 추기경, 3명의 대주교, 25명의 대감독, 167명의 감독, 7명의 대수도원장, 7명의 수도원장, 그리고 33명의 고위 성직자들의 결석으로 위임된 19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있었다.